사설

오지에도 불음을

조그마한 섬에 있는 유일한 사찰이 폐사위기에 있는 것을 어느 노보살의 불심으로 5년만에 복원됐다. 그러나 포교와 수행을 위해 이 절에 주석하실 스님이 없어 안타깝다는 보도를 접하면서〈본보 제140호〉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충남 보령시 어천면 낙도 삽시도에 위치한 보해암이 바로 이 사찰이다. 더욱 우리 불자들을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이 섬에 기독교는 교단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선교에 몰두한 결과 두 개의 개척교회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불교의 처지는 이렇게 절이 있어도 이를 호지하고 포교할 스님이 없어서 불자들이 기독교 등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불교 1천6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상징이다. 한국불교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문화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떨어진 지역의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정신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러한 낙도나 산간지 또는 농촌 등의 오지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종단이나 범불교적 차원에서 이러한 특수지역의 포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종단으로 자랑하고 있는 조계종단은 승가중심의 수행종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신도들은 교단으로부터 방치되고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포교정책, 포교전략에 문제가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포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나 낙도의 포교전략은 우선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들의 생활양식 및 태도에 걸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지역 포교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지역에서 수행과 포교할 성직자를 특별히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순환보직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자격을 갖춘 스님은 3~4년 이러한 특수지역에서 포교를 담당하고 나면 종단차원에서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충분한 재원마련이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낙도나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암연합회나 불교단체협의회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역별 불교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책과 연계하여 열악한 포교현실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종단의 포교원이나 종단협의회 등 범불교적인 차원에서 '특수지역포교위원회'와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서 주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포교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지역의 설법자료집, 영상매체를 통한 포교자료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문화활동과 관련된 신행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의 건설도 시급함을 강조하고 싶다. 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마련, 불교만이 가질수 있는 전통문화를 토대로 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생활불교를 편다면 주민들에게는 종교적 기능을 초월한 삶의 귀의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우화

열린마당

국제포교사

최근에 펴낸 문화체육부 자료에 따르면 불교의 해외파견 포교사는 2백5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개신교 천주교는 각각 5천5백90명, 3백33명이었다. 한국불교의 국제화 수준이 매우 미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95년부터 배출해 오던 국제포교사 양성과정마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부터 중단된 상태다. 기존에 배출된 국제포교사도 적절히 활용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포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할 것인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국제포교사 활용을 위해 주요 사찰에 외국인법회를 개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외국인법회 모습.

성수 〈조계종 포교국장〉 "교리-어학 겸비 인재확보 절실"

국제포교사는 불교에 대한 이해와 영어구사 능력을 겸비한 고급자원이다. 포교원은 서류심사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국제포교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95년부터 6개월과정의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설치, 2년동안 21명을 배출했다. 활용은 추후 문제라는 것이 포교원의 입장이다.

영어구사능력과 불교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언젠가 불교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지난 해와 95년 국제포교사 시험을 거쳐 배출된 인력들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서 외국인 안내를 맡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장은 좁은 의미의 국제포교, 즉 해외포교에 활용될 소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초파일 등 불교행사 뿐만아니라 월드컵대회 국제청소년캠프 등 각종 국제행사에 이들을 통역 및 진행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교원의 행정력이 불자 개개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95년초 카자흐스탄에서 포교하는 한 스님으로부터 현지포교를 지원할 인력파견을 포교원에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파견하지 못했다. 포교원의 명을 받고 외국에 나가 포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종책에도 투자개념의 도입이 절실하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종책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불교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내년 예산편성에 국제포교사 양성 또는 연수과정을 다시 운용키 위해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심산 〈통도사 부산포교원장〉 "외국실정 맞는 포교프로 개발"

산중불교를 지양하고 도시로 나와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70, 80년대 주제였다면 90년대는 도시에서 세계로 관심이 커져가야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전세계를 대상으로 불교를 인식시키고자하는 국제포교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한 반면 아직 우리의 준비나 의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포교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현재 통도사 부산포교원 내에 국제포교부를 두고 국내부와 국제부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국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참선 문화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부는 몽고 미얀마 등과 교류를 통해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포교를 펼치고 있다.

선진국보다 저개발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그들에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부터다. 몽골국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불교경전의 몽골어화 작업을 추진하고 미얀마 사찰스님들의 컴퓨터 교육과 영어회화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국제부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외국인들의 관심사를 파악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정보가 없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불교관련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것이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포교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포교를 어렵다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과감히 변화시켜나간다면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한다.

양장운 〈국제포교사 2기〉 "주요사찰마다 외국인법회 개설"

먼저 국제포교사를 활용치 못해 양성과정을 없앤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화는 우리의 선호와는 상관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다. 국제화의 다른 표현은 외국, 외국인과의 교류가 일상화되었으며, 외국과의 교류가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포교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당장 국제포교사를 그 이름에 걸맞게 외국에 보내 포교토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커 쉽지 않다. 여건이 안되면 국내 외국인포교에 활용하면 된다. 조계사에 가면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들려 이곳 저곳을 둘러본다. 법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고개만 쭈볏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계사 뿐만아니라 관광사찰이면 예외없는 현실이다. 이들의 안내에 국제포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월 1회 정도 사찰방문 외국인안내를 의무화해 자격갱신에 반영하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주요사찰에 외국인법회를 개설, 국제포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다. 이들에게 왜 부처님께 절을 하는가만 일러주어도 불자화는 멀더라도 한국불교를 아는 외국인이 될 것이다.

차제에 종립학교인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대학원 과정에 국제포교학과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또 종립기관에 근무중인 국제포교사를 해외에 파견, 포교활동을 근무로 인정하는 방법도 연구해볼만 하다. 국제화라는 큰 흐름에 불교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국제포교사 현황

8월초 조계종 총무원과 언론사들의 초청으로 고향 확인을 위해 입국한 캄보디아 거주 훈할머니의 통역은 불교인이 아닌 타종교인이 맡았다. 현지 선교사의 딸인 15세된 김유미양이었다. 한국불교가 '우물안 개구리'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조계종에서 국제포교사를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 그러나 이때는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스님들이 외국에 거주키 위해 필요한 서비스, 즉 비자발급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이었다.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과 포교원 심의 등의 요건만 갖추면 총무원에서 임명장을 내줬다.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간 인원이 1백5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일본에 나가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4년 개혁회의 출범 이후 기존의 국제포교사 양성제도도 개혁됐다. 양질의 국제포교사를 양성키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이에따라 6개월의 교육기간을 거쳐 1차인 95년 12명, 96년 9명이 배출됐다. 포교원은 불교에 대한 이해와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포교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이들은 지난 해

28개국에 258명 불법 전파
양성과정 예산삭제로 중단

와 올해 봉축행사 때 외국인안내 자원봉사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이 폐지됐다. 배출만했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종회에서 아예 예산을 삭제했다. 총무원청사 신축 등 신설된 예산항목에 밀려난 것이다. 포교원은 내년도 예산에 국제포교사 양성에 따른 예산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영어구사 능력과 불교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우수 인력들을 갖춰놓으면 언젠가 불교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교발전을 위한 투자개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순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올 11월 정기예산종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종회는 95년에 2천5백만원, 96년 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었다.

한편 문화체육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는 2백58명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48명 일본 45명 순이다. 러시아 캐나다 남아공화국에 각 4명, 벨기에 대만 싱가폴 프랑스 등은 1~2명이었다.

정성운 기자

생활 속의 불교 ⑬⑥

하심할 줄 아는 삶이 곧 바른 삶이다

"아집 아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쉬고, 모든 경계를 마음으로 안아들여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라.

나를 고집하는 마음은 불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항상 하심하고 상대를 공경한다면 그것이 곧 불법에 귀의하는 길이다. 마음의 고개를 숙여라. 겸손하라. 내 마음이 넉넉하면 그 향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된다.

내 몸과 네 몸이 둘이 아닌 것을 모르고, 내 자리 네 자리가 둘이 아닌 것을 모른다면 한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세상에 '나'로 태어나서 이제는 내 의지로 일하고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고로 나는 '나'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독립된 인격체이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남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로서 나를 위하고 나를 아낀다. 그러기에 남과 경쟁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도 사양하지 않는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남을 돕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다 좋기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은 '이기는 나', '으뜸가는 나'이다. 그런 '나'일 때 우리는 대체로 살 맛을 느낀다.

나무로 비유하면 언제나 잎·가지가 무성하고 둥치가 굵고 뿌리가 튼튼해서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나무일 것이다.

그런데 모양 좋게 잘 자란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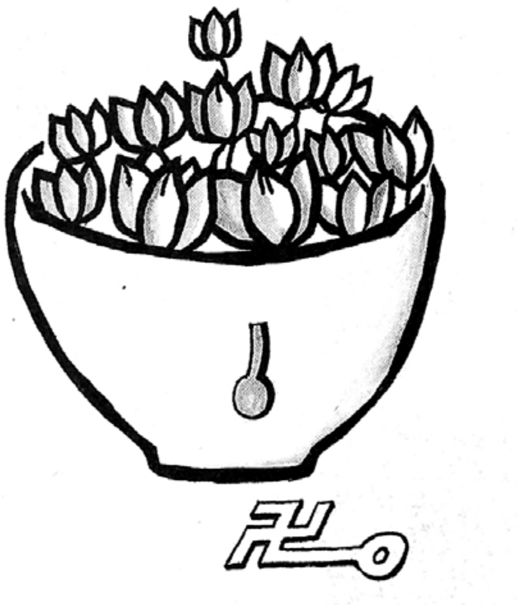
아니다. 대기와 태양과 토양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나무는 생명체로서 그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대기·태양·토양으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독립·개별적인 존재일 수 없다. 그러고 싶어도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사람도 그점에선 다르지 않다.

단 한 순간이라도 호흡을 멈추고 살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영양공급 없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나'로서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닫혀있는 조직체계'가 아니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이는 '열려있는 조직체계'인 것이다. 안과 밖이 둘이 아니요, 안과 밖은 서로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주고 받아야 하는 하나의 체계인 것이다. 이 관계는 생명체와 자연 사이에서만 그러한게 아니라 생명체와 같은 생명체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남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덕분에 잘 지내고 잘 살아 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덕분에 살고 덕분에 먹고 덕분에 쓰고 덕분에 듣고 덕분에 말하고 덕분에 보고 덕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다 하지 않으랴.

그러니 어찌 저 혼자 잘났다고 하랴.

빵 한 쪽만 나눠 주어도 감사하다, 고맙다 하거늘 나를 살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데 어찌 은혜를 모른다 하랴. 어찌 겸허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앞에서 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생명은 단 한순간이라도 독립적일 수 없다.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으면 생명 그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이것이 순리요 자연의 법칙이자 질서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 그 속에서 숨 쉬고 살아야 한다. 함께 흘러야 한다. 거슬러서는 안된다. 아니, 거스르면 그것은 곧 파괴를 뜻한다. 역리(逆理)는 고통을 낳고 건강을 해치고 싸움과 갈등을 불러온다.

아집·아만·욕심·집착 따위는 다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나·너, 안·밖이 둘이 아닌 체계에서 나를 고집하고 안과 밖을 가르는 일이란 체계를 거부하고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덕분에 사는 이치를 외면하는 것이니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나를 낮추는 마음가짐, 겸허해 할 줄 알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삶이 곧 사람다운 삶일 것이다.

협찬 : 주인공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